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과 외로움

서 부 덕*·최 은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 발전은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아를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다양한 국적, 성격, 취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부모와 가족을 벗어나 넓은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고 나만의 공간을 인터넷상에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의 부작용은 간과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인터넷 중독을 하나의 질환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어 있다(Lee, Lee, Paik, Kim, & Shin, 2001).

그러나 일부 반대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 중독은 하나의 정신질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Lee et al., 2001). 이러한 문제점으로 Diane(2005)은 오늘날 증가된 인터넷의 사용이 과학을 과신하고 인성을 무시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음을 보고

하였으며, Jue와 Kwon(2001)은 인터넷 관련 역기능적 현상으로 자살사이트, 살인 사이트, 폭탄제조 사이트, 안티사이트, 엽기/잔혹 사이트, 인터넷 성인방송국, 도박 중독증, 사이버 주식거래 중독증 등을 제시하였다.

고등학생 621명을 대상으로 한 Kim(2001)의 연구에서는 51.2%가 인터넷 중독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인터넷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8.5%는 인터넷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는 중독 증세를 보이는 집단으로 분류되어 총 59.7%가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상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 중독증의 확산이 우려되므로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찾아 내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및 예방법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인터넷은 영화, 연극, 음악, 미술, 오락 등의 유희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아이디어로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 다중인격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분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Kim, 1996). 또한 익명성이 보장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안전성을 가지고 인터넷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사이버 공간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공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가상 세계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활동함으로써 사회적 능력이 떨어져 친구들과 멀어지고 부모와의 의사소

* 대구산업정보대학 간호과 부교수

** 대구산업정보대학 간호과 전임강사(교신저자 E-mail: eh5472@tpic.ac.kr)

투고일 2006년 7월 6일 심사회의일 2006년 7월 6일 심사완료일 2006년 8월 28일

통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Cho, 2003) 사회부적응에 대한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간호학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2차적인 사회부적응과 의사소통 결여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발달은 인생의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지만 다른 발달단계보다도 특히 청소년기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시점이며, Young(1999)는 인터넷 중독자의 상당수가 만성적인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은 인터넷 중독의 하나의 원인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rout 등(1998)의 연구에서 인터넷의 사용시간이 많은 사람은 사회적 활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현실세계의 끈끈한 관계를 가상세계의 느슨한 관계로 대신하면서 외로움과 불만족을 더 많이 호소한다고 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이 인터넷 중독의 주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영향 변수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을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 한다.
- 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파악한다.
- 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여부에 따른 외로움을 파악 한다.
- 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외로움간의 상관 관계를 파악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외로움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500명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그 중 본 연구에 부적절한 응답을 한 대상자 14명을 제외한 486명(97.2%)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해 Young(1999)의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인터넷 중독 검사(Internet Addiction Test)를 Lee, Lee, Kim과 Oh(2000)가 청소년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 한 도구이다. 총 20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은 인터넷, 게임, 채팅, 통신사용과 관련된 강박적 행동이나, 행동상의 문제 및 정서적 변화 등을 나타낸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총점이 50점 이상일 경우 인터넷 중독을 의미하는 검사이다. 도구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 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즉, 자기 존중 정도와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 하는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척도를 Jeon(1974)이 한국판으로 표준화시킨 것으로, 긍정형과 부정형이 혼합되어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 이었다.

3) 외로움

개인이 경험하는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가 제작한 UCLA 외로움 척도를 Kim과 Kim(1989)이 번안한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이다. 이 도구는 응답자의 반응 편파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 방향으로 본 10개 문항과 부정적 방향으로 본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Russell 등 (198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4이었고, Kim과 Kim(1989)의 연구에서는 .84, 본 연구에서는 .89 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이다. 본 연구자가 해당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각 학교에 근무하는 학년 부장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자가 학년 부장 선생님과 함께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구목적 및 설문지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배부한 후 연구에 동의하는 학생에게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정도는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은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여부 따른 자아존중감, 외로움은 t-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정도는 중독 집단과 비 중독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중독 집단의 평균은 65.95점 이었고, 비 중독 집단의 평균은 34.51점이었<Table 1>.

<Table 1> Internet addiction (N=486)

Division	n(%)	M±SD
Addiction	165(34)	65.95±14.11
Non-addiction	321(66)	34.51± 8.38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여부를 보면 성별($\chi^2=13.956$, $p<.001$), 성적($\chi^2=9.445$, $p<.01$), 경제상태($\chi^2=11.701$,

$p<.01$), 인터넷 이용 시 모의 태도($\chi^2=17.278$, $p<.001$), 인터넷 이용 시 부의 태도($\chi^2=17.192$, $p<.001$), 인터넷 이용 시 선생님의 태도($\chi^2=27.056$, $p<.001$), 인터넷 이용 시 친구의 태도($\chi^2=16.40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 영역별로 보면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102명(61.8%)이었으며, 여성은 63명(38.2%)이었다. 성적은 '상위 3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59명(35.8%)이었으며, '중간'이 63명(38.2%), '하위 30%'가 43명(21.6%)이었다. 경제 상태는 두 집단 모두 '중'이 인터넷 중독집단 110명(66.7%), 인터넷 비중독 집단 258명(80.4%)로 가장 많았으며, '상'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31명(18.8%), '중'은 110명(66.7%), '하'는 24(14.5%)이었다. 인터넷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는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이다가 119명(72.1%), 181명(56.4%)로 가장 많았으나 중독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는 비중독 집단이 120명(37.4%), 중독집단이 31명(18.8%)로 비중독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도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이다가 109명(66.1%), 165명(51.4%)로 가장 많았으나 중독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는 비중독 집단이 139명(43.3%), 중독집단이 41명(24.8%)로 비중독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에 대한 선생님의 태도는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이다가 95명(57.6%), 107명(33.3%)로 가장 많았으나 중독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는 비중독 집단이 198명(61.7%), 중독집단이 68명(41.2%)로 비중독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에 대한 친구의 태도는 두 집단 모두 '그저 그렇다'가 78명(47.3%), 209명(65.1%)로 가장 많았으나 비중독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것은 중독 집단이 61명(36.9%), 비중독 집단이 87명(27.1%)로 중독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고등학생, 부모유형, 부의 인터넷 사용, 모의 인터넷 사용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인터넷 중독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두 집단 간 자아 존중감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중독집단의 자아 존중감은 25.46±5.07점이었으며, 비중독집단은 26.80±4.53점으

<Table 2> Internet addi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Addiction	Non-addiction	X ²
		N(%)	N(%)	
Gender	Male	102(61.8)	141(43.9)	13.956***
	Female	63(38.2)	180(56.1)	
Education	Middle school	77(46.7)	153(47.7)	.043
	High school	88(53.3)	168(52.3)	
Record at school	High grade (30%)	59(35.8)	93(29.0)	9.445**
	Middle grade	63(38.2)	169(52.6)	
	Low grade (30%)	43(21.6)	59(18.4)	
Family structure	Two parents family	150(90.9)	305(95.0)	3.077
	Single parent family	15(9.1)	16(5.0)	
Internet use of father	Use	118(72.4)	240(74.8)	.316
	Non-use	45(27.6)	81(25.2)	
Internet use of mother	Use	91(55.2)	167(52.0)	.423
	Non-use	74(44.8)	154(48.0)	
Economic status	High	31(18.8)	40(12.5)	11.701**
	Middle	110(66.7)	258(80.4)	
	Low	24(14.5)	23(7.1)	
Attitude of mother about internet	Negative	119(72.1)	181(56.4)	17.278***
	So-So	31(18.8)	120(37.4)	
	Positive	15(9.1)	20(6.2)	
Attitude of father about internet	Negative	109(66.1)	165(51.4)	17.192***
	So-So	41(24.8)	139(43.3)	
	Positive	15(9.1)	17(5.3)	
Attitude of teacher about internet	Negative	95(57.6)	107(33.3)	27.056***
	So-So	68(41.2)	198(61.7)	
	Positive	2(1.2)	16(5.0)	
Attitude of friend about internet	Negative	26(15.8)	25(7.8)	16.407***
	So-So	78(47.3)	209(65.1)	
	Positive	61(36.9)	87(27.1)	

p < .01, *p < .001

로 t=-2.949, p<.001로 나타나 비중독집단의 자아존중감에 비해 중독집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Self-esteem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Division	N	M±SD	t
Addiction	165	25.46±5.07	-2.949**
Non-addiction	321	26.80±4.53	

**p < .01

4. 인터넷 중독여부에 따른 외로움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여부에 따른 외로움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두 집단 간 외로움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중독집단의 외로움이 39.48±10.06

점인 반면 비 중독집단은 34.77±9.05점으로(t=5.216, p<.001) 나타나 비 중독집단에 비해 중독집단 청소년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4>.

<Table 4> Loneliness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Division	N	M±SD	t
Addiction	165	39.48±10.06	5.216***
Non-addiction	321	34.77±9.05	

***p < .001

5.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외로움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 외로움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 인터넷 중독과 자아 존중감은 부적 상관(r=-.160, p<.01), 인터넷 중독과 외로움은 정적

상관($r=.251, p<.01$),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은 부적상관($r=-.428, p<.01$)으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고, 외로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s	Internet addiction	Self-esteem
Self-esteem	-.160**	
Loneliness	.251**	-.428**

**p < .01

IV. 논 의

인터넷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오락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보급과 발전은 기존 매체들이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양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인터넷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중독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여자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은 대부분의 연구 결과(Sung, 2005; Cho, 2003; Paeng, 2003)와 일치하며 이는 Cho(2003)의 인터넷 중독 예측모형 연구에서 남자가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Lee, Oh, Cho, Hong과 Moon(2001)의 연구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가 없어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중독비율은 34%로,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001)의 연구결과인 33.4%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03)의 연구결과인 62.4%와 많은 차이가 있어 여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을 파악하는 확대연구가 요구된다.

성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은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Lee 등(2001)의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또한 성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을 파악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성적에 따른 인터넷 중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본 연구에서 비중독 집단이 높았으며, 외로움은 중독 집단에서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에 중독되어 가는 것은 현재에서의 낮은 자기상으로 인해 나쁜 자기상을 숨기고 남에게

그럴듯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독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외로움은 현실에서의 끈끈한 관계를 가상공간에서의 관계로 대신하면서 증가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하위 집단의 특성을 연구한 Kim(1999)의 연구와 일치하며, Cho(2003)의 예측모형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과 외로움 정도가 높은 것은 인터넷 중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지도할 때 자아존중감의 고양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매우 미비한 상관관계($r=-.160, p<.01$)였으며, 이는 Cho(2003)의 연구($r=-.078, p<.05$)와 유사하며, Lee(2005)와 Seo(2005)의 $r=-.37, p<.01$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중독이 약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기 보다는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중독에 영향 미치는 다른 외생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 중독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만을 파악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다른 변수들까지 포함한 포괄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중독과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Park, 2002), 충동성, 및 사회회피(Paeng, 2003), 자기 효능감(Lee et al., 2001) 등과의 상관관계를 본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간의 모형예측 연구가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2005년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D시에 소재하는 중고등학생 48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법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999)이 개발하여 Lee 등(200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Jeon(1974)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또한 외로움은 Russel 등(1980)이 제작하여 Kim과 Kim(1989)이 번안한 외로움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hi-squar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비율은 34%이며 인터넷 중독은 성별, 성적, 경제상태, 인터넷에 대한 모의 태도, 인터넷에 대한 부의 태도, 인터넷에 대한 교사의 태도, 인터넷에 대한 친구의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인터넷 중독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t=-2.949$, $p<.01$)과 외로움($t=5.216$, $p<0.001$)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인터넷 중독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부적상관($r=-.160$, $p<.01$), 외로움과는 정적상관($r=.251$, $p<.01$), 자아존중감과 외로움 간에는 부적상관($r=-.428$, $p<.01$) 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비율은 성별, 성적, 경제상태, 인터넷에 대한 부모, 교사와 친구의 태도, 자아존중감, 외로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나 미약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확대연구 및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하는 변수들을 광범위하게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Cho, Y. R. (2003). *A Predictive model for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Diane, M. W. (2005). Computer addiction: Implications for nursing psychotherapy practice. *Perspect Psychiatr Care*, 41(4), 153-161.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Journal*, 11, 109-129.
- Jue, J. & Kwon, S. M. (2001). Type of problematic behaviors in internet usage and their classification: based upon domestic cases. *Psychol Sci*, 10(1), 93-115.
- Kim, G. H. & Kim, J. H. (1989). UCLA loneliness scale. *J Student Guidance*, 16, 13-30.
- Kim, H. W. (2001).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use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ce. *Korean J Youth Studies*, 8(2), 91-117.
- Kim, J. B. (1999).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internet addicts sub-grou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J. H. (1996). Internet syndrome by diagnosed cyber-doctor. *Gahakdonga*, 9, 153-156.
- Kim, S. Y. (2003). *The impact of self, stress and the internet use control on the internet addiction-among on the adult online us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rout, R., Patterson, Michael., Lundmark, V., Kiesler, Sara., Mukop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 Psychol*, 53(9), 1017-1031.
- Lee, J. H. (2005). *The effect of internet environment variable and mediating variable on internet addiction disposi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M. S., Oh, E. Y., Cho, S. M., Hong, M. J., & Moon, J. S. (2001). An assessment of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problems related to depression, social anxiety and peer relationship.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0(4), 616-625.
- Lee, S. B., Lee, K. K., Paik, K. C., Kim, H. W., & Shin, S. K. (2001).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anxiety, depression, and self efficacy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0(6), 1174-1184.

- Lee, S. H., Lee, S. Y., Kim, E. J., & Oh, S. G. (2000).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and offspring education*. Samsung Life Public Welfare Foundation.
[http://welfare.samsunglife.com]
- Paeng, H. K. (2003). *The study of internet addicted adolescent depression, impulsiveness,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Daegu.
- Park, S. H. (2002). *The relationships among internet addiction, social support and stress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NJ.
- Russel, D., Peplau, L. A., & Cutrona, C. E. (1980). The receiv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 Pers Soc Psychol*, 39, 472-488.
- Seo, M. Y. (2005). A study on related variables of high school students internet addi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Busan.
- Sung, D. H.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uvenile's internet addiction an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Student BMJ*, 7, 351-352.

- Abstract -

Internet Addiction, Self-esteem,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Suh, Boo Deuk*Choi, Eun H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ternet addiction, self-esteem and loneliness in adolescents. **Method:** Subjects we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Daegu (N=486). Self-rating questionnaire included demographic data, the Korean version of Young internet addiction scale, self-rating self-esteem and loneliness scale. We have received the consent from teachers and students. **Results:** Among the subjects, 34% was addicted and internet addic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record at school, economic status, attitude of mother, father, teacher and friend about interne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and loneliness according to internet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self-esteem and loneliness were related to each other.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ternet addiction would be changed according to gender, record at school, economic status, attitude of mother, father, teacher and friend about internet.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generalize these results and examine widely the related variables of internet addiction.

Key words : Internet addiction, Self-esteem, Loneliness, Adolescents

* Associate professor, Nursing Department, Daegu Polytechnic College

** Full-time Instructor, Nursing Department, Daegu Polytechnic College